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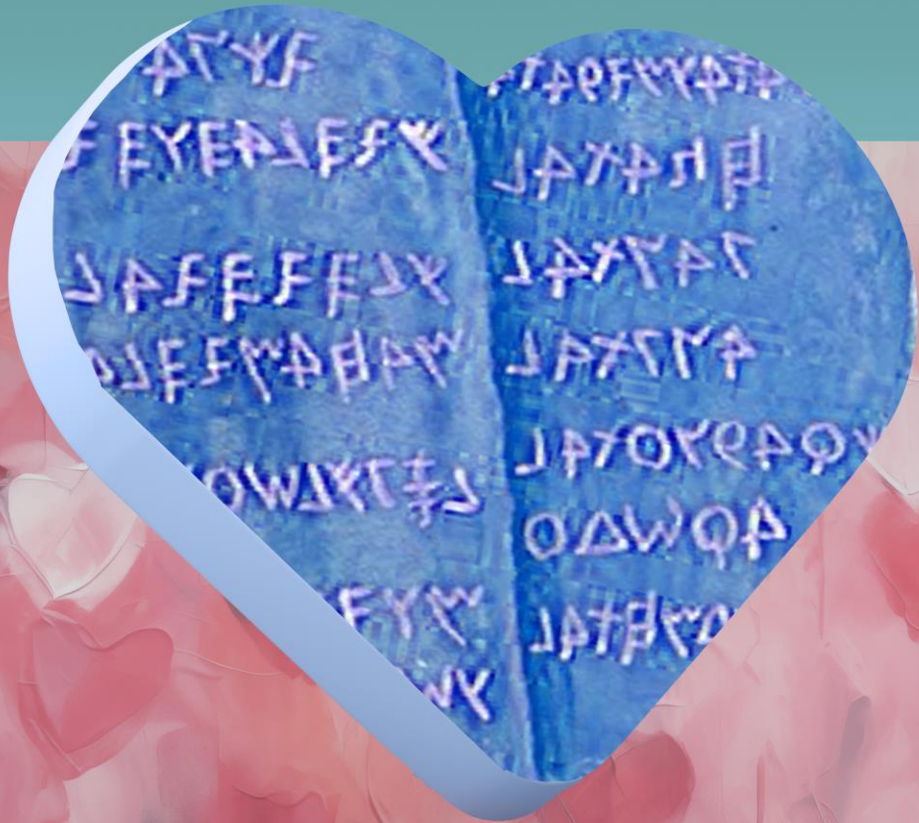


모든 불가능함을 이겨내는 믿음

5과 2024년 5월 4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



14세기 '종교개혁의 별' 위클리프가 시작한 일은 그 후 200년이 지난 16세기에 그 빛을 받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개혁의 중심에는 다섯가지 기초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 ★ 1.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 ★ 2. 오직 은혜로 (Sola gratia)
- ★ 3.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 ★ 4. 오직 예수님만 (Solus Christus)
- ★ 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



믿음의 기초:

- 오직 성경 / 오직 하나님께 영광.
- 누구에게나 성경이 제공됨.
- 성경을 해석해주실 분.



구원의 기초:

- 오직 은혜로 / 오직 믿음으로 / 오직 예수님만.
- 은혜안에 성장함.

믿음의 기초

오직 성경 /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렘 15:16)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 성경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용기는 새롭게 됩니다.

● “그 잎사귀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 기쁨과 소망 그리고 빛을 뿜어냅니다

● 우리에게 갈 방향을 가르쳐 주고, 확신, 능력 그리고 지혜를 줍니다

● 우리 몸, 정신, 감정과, 영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말씀의 가르침에 충성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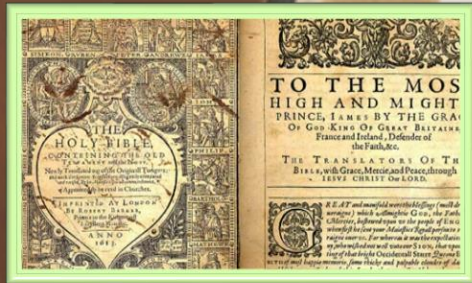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성경이 제공됨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행 12:24)



틴데일(1494-1536)은 위클리프 성경(라틴어성경을 번역)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원어를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리스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출판했습니다.

마일스 커버데일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본을 번역했고 틴데일이 시작한 성경번역을 계속하여 보완했습니다. 그리하여 1535년에 최초로 영어로 인쇄된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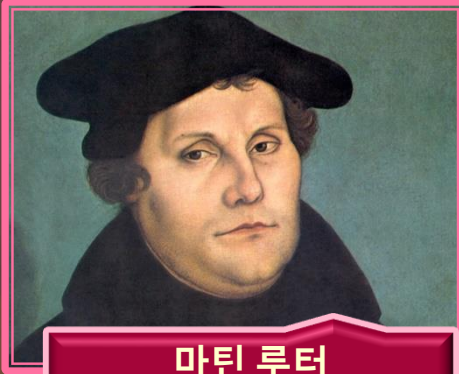
그의 성경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1611년에 출판된 킹제임스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틴데일, 커버데일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의 수고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종교 개혁을 공개적으로 환영하지 않은 사람의 작업이 오히려 개혁자들의 성경 번역에 없어서는 안 될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로텔담의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은 개혁자들의 성경번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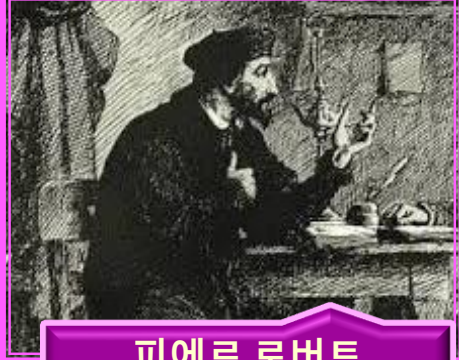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성경이 제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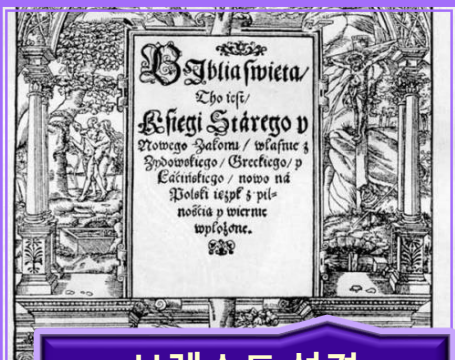
영어 성경이 번역되어 출판되는 동안 다른 개혁신자들도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새로 발견된 "신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독일어 (1534)



피에르 로버트
올리베탄(Pierre
Robert Olivétan)
프랑스 (1535)



브레스트 성경
폴란드어 (1563)



카시오도르 레이나
(Casiodoro de Reina)
스페인어 (1569)



클라리스 성경 (Kralice
Bible)
체코 (1579)



요나스 브렛쿠나스
(Jonas Bretkunas)
리투아니아어 (1579)



주리 달마틴 (Jurij
Dalmatin)
슬로베니아어 (1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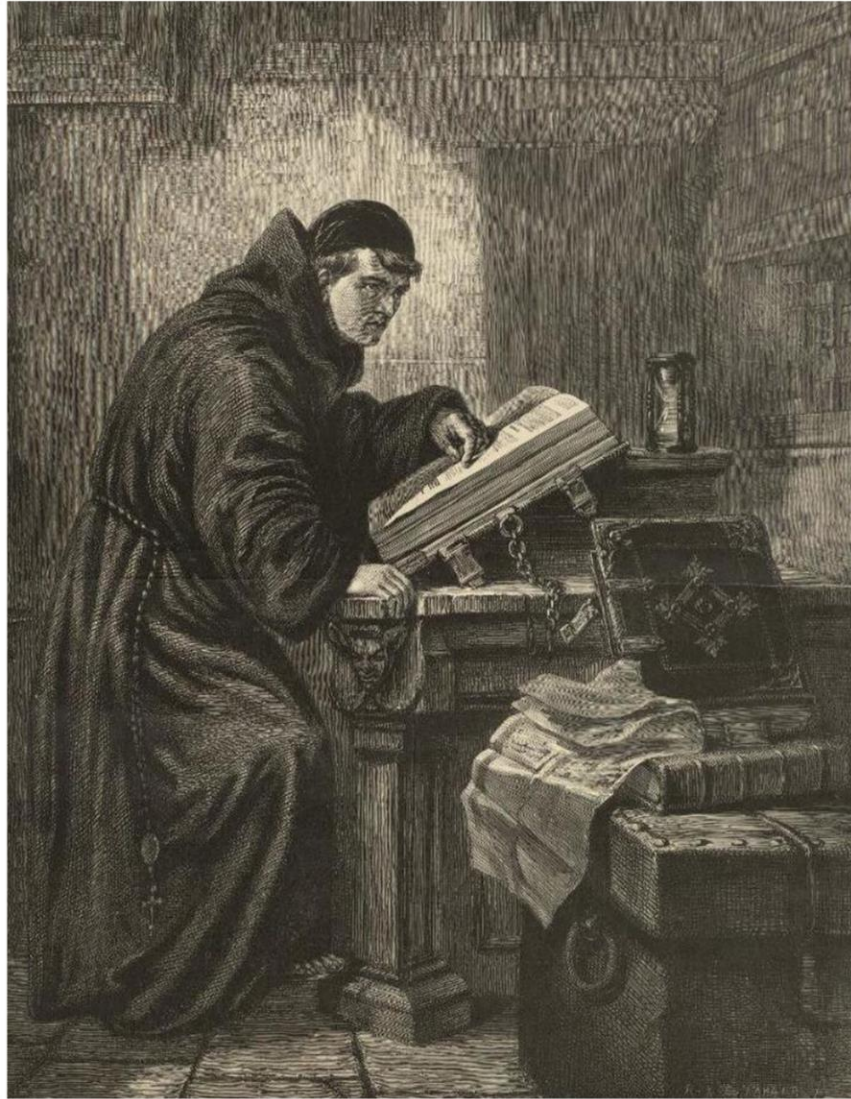
지오바니 디오다티
(Giovanni Diodati)
이탈리아 (1607)



쥘아오 페레이라 데 알메이다 (João
Ferreira de Almeida)
포르투갈어 (1691)

성경을 해석해주실 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벨후 1:20)



마틴 루터가 처음 라틴어 성경을 읽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 루터는 위대하신 분이 자신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살아 있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두운(무지한) 전통은 사라졌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밝혀 주었을까요?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있는 단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에 담긴 진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요 14:26; 16:13)

그 때부터 국가 공식 교회(로마교회)가 가르치는 전통과 성경의 진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성경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꾸준히 동행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진리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시는 한 분 밖에
없는 선생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만이 사람의 양심은 깨어나고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말씀의 모든 명령과 약속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제 자리에 놓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 영혼도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엘렌 화잇 (시대의 소망. 671)



구원의 기초

오직 은혜로 / 오직 믿음으로 / 오직 예수님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에베소서 2:8에 나오는 세가지 기본 진리.

- 1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 2 은혜를 받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 3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아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갚고 영생을 누릴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롬 6:23).

왜 우리의 빛을 갚기 위해 하나님께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시 49:8; 엡 2:9).

마틴 루터는 오직 예수님만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묶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풀려나 변화되었습니다.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그 대가는 무한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요 3:16; 롬 8:32).

은혜 안에서 성장함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벧후 3:18)



중세 시대 사람들은 미사, 황소제물, 채찍으로 자신을 때림, 순례 등을 실천해서 자신과 조상을 구원시키려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그들은 진짜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유를 얻고 율법을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순종했을까요?

감리교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존 웨슬리(1703-1791)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믿음을 받고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더 조심스럽게 깊이 연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될 것입니다.



“왈덴스 사람들, 위클리프, 요한 후스,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그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켰던 큰 원칙은 바로 거룩한 성경만이 사람의 믿음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황, 공의회, 교부, 또는 왕이라도 사람의 신앙, 즉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의 자유를 통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단 하나밖에 없는 권위로 인정했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모든 교리와 모든 주장을 시험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믿음은 그들이 화형에 처하여 죽어갈 때도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불꽃이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할 때 라티머는 동료 순교자들에게 외치기를 “안심(평안)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휴 라티머의 글중에서 1:8”